

웨신총회 메시지

제108회기 주제 : 선한 열매를 맺는 총회(롬 8:28)



총회장 김현수 목사

무엇보다 함께 어게동무하며 달려온 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언제나 결에서 부족한 자를 위로하며 격려로 힘을 주신 증경 총회장님과 총회원 모든 분들과 깊은 감사드립니다.

원님들께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씨를 뿌렸기에 우리 총회에 선한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로 더 실속있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한국 교계에 중심이 되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웨신총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금번 108회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웨신총회가 하나가 되어서 더 높이, 더 멀리, 힘차게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단회적인 인생, 멋지게 주님 손에 붙잡혀 되어 귀하게 쓰임 받으시라. 우

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우리는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합력하여 선한 열매로 자랑스런 총회가 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총회장 김현수 | 꿈너머꿈교회 담임목사

홍범도 홍상 육사 교정 철거 논란에 대하여

홍범도는 육사의 롤모델이 결코 될 수 없다



가 시끄럽다. 사실 홍범도는 독립군 활동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1921년 이후의 행적으로 인하여 흔쾌하게 자유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홍범도는 일본군과 싸운 봉오동전투나 김좌진 장군과 함께 싸운 청산리대첩까지는 모두가 인정하는 독립군이다. 그러나 1921년 일제에 의하여 쫓긴 독립군들이 대부분 소련의 스보보드니시(자사)에서 모여 있을 때, 적군(赤軍-소련군)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해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홍범도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들이 있으나, 백번 양보해도, 홍범도의 이후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는 우리 독립군을 무참히 학살한 적군편에 섰고, 그가 끝까지 목숨 바쳐 싸운 다른 독립군들과 다르게, 혹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다.

홍범도는 이후 1922년 모스크바에 가

서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으로부터 상급과 자기 이름이 새겨진 권총과 소련 군복을 하사받았고, 소련군 제5군단 합동민족여단의 대위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1937년 스탈린에 의하여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져 살다 1943년 당시로서는 드물게 75세로 장수하였다.

나라 잃고, 국권 잃고, 오갈데 없는 삶을 살았던 분들의 시대적 비극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대한민국과는 동떨어진 분들이기에 오랫동안 역사에 묻어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조심스럽다. 그런데 이 문제를 소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홍범도의 홍상(다른 네 분도 포함되나 논란이 되지 않음)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우게 하고, 육사생들에게 경례를 하게 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홍범도의 유해(遺骸)를 가져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시킨다.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나서, 잘못된 역사관을 고친다는 입장에서, 육사 교정의 홍범도 홍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광복회까지 가세하여 옮기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참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일수록, 근본과 역

사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육사는 77년의 전통을 가진 호국 간성의 요람이다. 육사는 해방 이후 생긴 군사전문학교이다. 또 이들은 6.25전쟁을 치르면서, 크게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실천하게 된다.

지금까지 육사 출신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 1,475명이 산화했다고 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들이 죽으면 사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략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육사 교정에 공산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홍범도의 홍상을 세워놓고 육사생들이 거수경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것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홍범도를 부각시키려다 오히려 국민들이 홍범도의 과거 이력을 더 자세히 알아버리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현재 우리의 주적(主敵)인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야 하는 육사 생도들에게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에 의한 6.25 남침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김원봉도 '국군의 뿌리'라고 한 적이 있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그런 위치에서 공산주의자이며, 우리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인물을 국군의 뿌리라고 한 것은 몰지각, 몰역사적 발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시대 엄청난 애국 운동을 한 지식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잠시 달라졌다고하여 '반민족행위자'로

낙인을 찍어버렸다. 기미독립선언문을 쓴 최남선, 애국가의 작사자 윤치호, 그 외에 이광수, 장덕수, 송진우 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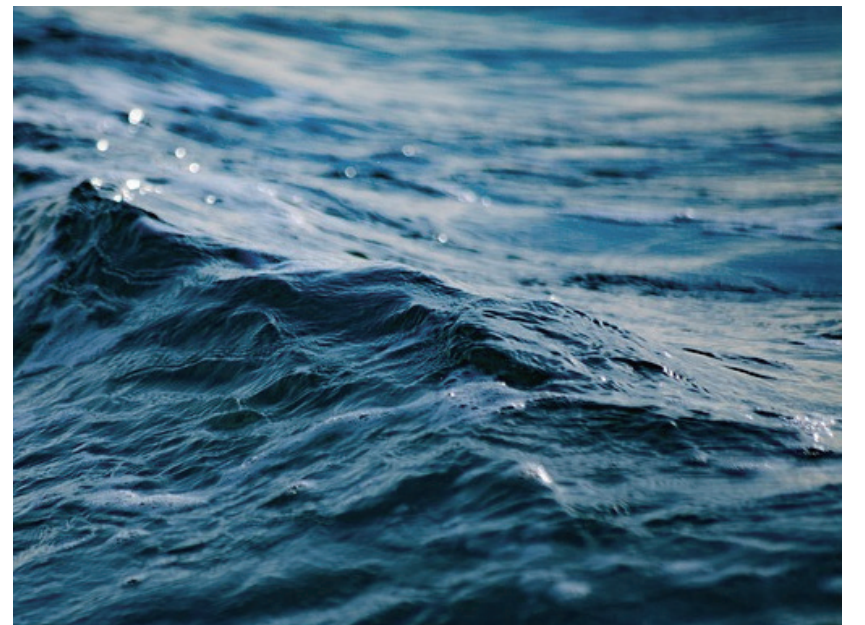
그러나 유독 공산주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다. 잠시 일제에 동조한 것을 보고 반민족행위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독립운동을 했으나 공산주의에 들어간 인물들도 똑같은 잣대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덮여 씌우려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색깔론이 아니라 역사를 비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놓으려는 정상적 행위라고 본다.

홍범도가 독립군으로 잠시 나라를 위해 싸운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공산화하려고 했던, 소련, 중국, 북한 편에 있었던 사람들과 과거 독립군의 공적으로써 두루뭉술하게 위인으로 덮어치려는 것은 안 된다.

홍범도는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려 했고, 적화통일하려 한 공산주의와 맞닿아 있다. 그가 좋은 삶든 선택한 것도 공산주의이다. 그러므로 항일운동만 하면 공산주의자라고 관망하는 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그는 육사의 태동이나, 육사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기에, 육사생들의 롤모델이 결코 될 수 없는 분이다. 따라서 육사 교정에서 그의 홍상을 철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를 자꾸 부정하고 막는다면 오히려 지하에 있는 분을 더욱 욕되게 만드는 것이 됨을 알아야 한다.

골든타임 30개월 안에

칼럼 산마루서신 이주연 목사



"일월 성신에는 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끈고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눅 21:25-26 말씀이 지금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바다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인도양 양극단은 2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1, 2도 차이가 심각한 것일까? 인도양 바닷물을 양동이에 넣고 2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은에너지가 필요할까? 원자폭탄을 매일 몇 개씩 일 년 내내 터뜨리는 큰 에너지가 있어야 인도양의 물을 2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2도 차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품은 것이기에 상상 넘버의 변화를 일으킨다.

2019년, 인도양 동쪽 호주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다. 한반도 면적보다 큰 숲이 타버렸으며 25만 명의 소방대원이 동원되었지만, 사람

이 끌 수가 없었다. 기상천외의 갑작스런 폭우로 꺼지게 된다. 이로써 80조 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 같은 해, 인도양 서쪽 아프리카는 홍수와 폭우로 300만 명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습도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난 4천억 마리 메뚜기 때는 인간의 식량을 삼 시간에 먹어 치웠다.

하와이에서의 산불이 있었다. 대책 없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 사람들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대망상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인간은 산업혁명 이후로 막대한 열을 생산하였다. 이는 1초에 핵폭탄 5개가 터지는 열에너지와 같다. IPCC 6차 보고서는 30개월 안에 전격적인 변화와 결정을 촉구하였다.

30개월, 골든타임을 놓치면 재앙을 피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즉각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는 깨어 행동해야 한다.

이는 정쟁(政爭)이나 우격다짐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역사의 격랑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에 대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후대들에게 바른 역사를 학습게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세대는 이

런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보수)총회 제 108회 정기총회

주제 :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 23:1~6절)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총 회 장

이 규 필 목사
동천교회

부총회장	서 기	부 서 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 계	부 회 계	총 무
정요한 목사 원돌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천종록 목사 연악교회	김주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배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강대섭 장로 평안교회	박용순 목사 화목한교회

일시 : 2023년 9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 시무)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 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 규 필 목사

알림/예장(합동보수)총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같이하며 교단 발전에 헌신할 목회자, 교단, 기관단체 가입을 환영합니다.
가입문의 : 총회장 이규필 목사 H.P 010-7474-3173 (합동보수 제 108회기 정기총회는 부부동반 환영합니다. 살롱)

총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가산동) 전화:(02)496-0191 / 0181(FAX 겸용)



하이브리드 장착하고 두배 커진 병원선

‘섬 마을 건강 지킴이’ 충남병원선, 취항식 갖고 본격 현장 투입 - 최신 의료장비 탑재하고 물리치료실 설치 ‘의료서비스 강화’ 기대



국내 병원선 가운데 가장 큰 몸집에 최첨단 의료장비를 싣고, 친환경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하며 더 빨라진 ‘충남병원선’이 섬 마을 주민 건강 지킴이로서의 임무를 본격 시작했다.

도는 29일 대전항 보령해경 부두에서 김태흠 지사와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건조한 충남병원선 취항식을 개최했다. 충남병원선은 선령 22년으로 노후한 ‘충남501호’를 대체함으로써 운항 안정성을 확보하고, 진료 여건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23억 원을 투입해 건조했다. 선박 규모는 충남501호(160톤)보다 두배 큰 320톤으로, 전국 4개 시도 5척의 병원선 가운데 가장 크다. 제원은 전장 49.9m, 폭 9m, 깊이가 3.6m이며, 최대 승선 인원은 50명, 최대 항속 거리는 1037km이다. 충남병원선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디젤기관과 에너지저장장치(배터리)를 교차 사용하는 2 복합 추진 방식으로 항해한다.

시 긴급 이송이 가능한 전망이다. 선내 주요 시설로는 내과·치과·한 의과 진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약제실 등 기존 시설에 물리치료실을 신설했다. 물리치료실은 섬 마을 주민들의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골밀도 장비와 생화학분석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운영·의료 인력도 18명에서 4명을 보강, 섬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 충남병원선은 연간 180일 이상

도내 6개 시군 32개 섬을 돌며 △ 도서주민 환자 진료 및 보건 향상 △ 건강증진 교육·홍보 △ 치주질환자 치료 및 스케일링을 통한 구강관리 △ 침술 활용 통증 클리닉 등 한방 건강 관리 △ 방사선 촬영 및 임상병리검사 △ 물리치료 △ 초음파 및 골밀도 검사를 통한 질병 예방 관리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날 취항식은 경과 보고와 유공자 표창, 명명패 전달, 테이프 커팅, 병원선 시찰 및 시승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행사에서는 특히 22년 동안 충남 해를 누비며 섬 마을을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충남501호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김태흠 지사가 꽃다발을 증정하는 송별 이벤트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지사는 “충남501호가 한 해 1만 건에 가까운 진료를 봤는데, 충남병원선은 2배로 커진 만큼 더 많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충남병원선이 서해안 곳곳 섬 주민들의 건강과 의료 복지를 확실히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권 회복 위한 희생 잊지 않을 것”

전형식 정무부지사, 29일 ‘제113주년 경술국치일 추념식’ 참석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29일 충남보훈관에서 열린 ‘제113

주년 경술국치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광복회 충남지부가 주최·주

관하고 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나라를 빼앗겼던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나라 사랑의 마음가짐과 보훈 의식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 부지사와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을 비롯해 도내 보훈기관·단체장 및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개식사, 추념사, 추념시 낭송, 독립군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께 감사 드린다”라며 “비통한 역사를 잊지 않고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라며 “113년 전 오늘 있었던 강제병탄(強占併呑)의 치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심의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박종서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cpj5037@daum.net / jtntvcpi@naver.com

▶팩스 :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그리스도인의 ‘삼보일배’ 참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전 9:13)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를 씻기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불교에 귀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삼보일배’에 참여해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목회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감출 수 없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및 300일 추

모 대회’에서 4대 종교가 삼보일배를 한다는 것인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선택될 수 있겠지만, 종교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방법적인 것도 신앙적이어야 한다.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추모하고 행동하겠지만, 자신의 교회 목회자가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신앙적 혼란과 혼돈을 주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가증한 행동인가?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자유

주의 비판과 함께 한국교회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바울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전 9:12-13)”고 말했다. 음식 하나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인지를 살피야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삼가야 한다. 그런데 “삼보일배”는 불교의 수행방법 중 하나이다. 이런 행위에 교회 목회자가 참여한다면 한국교회와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정부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안전에 더욱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대비할 것을 요청한다. 여야는 문제를 정쟁화시켜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안전을 위한 법을 강화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척시, ‘2023년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공감콘서트’ 공감상 수상

삼척시가 도민 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2023년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공감콘서트’에서 공감상을 받았다.

지난 8월 28일(월) 오후 2시 도청 별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 공감콘서트에서 도와 시군 민원업무 담당자,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심사에서 선정된 최종 4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삼척시청 민원과 홍재호 주무관은 “덕분에 우리 땅을 지켰습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에서 민원의견 청취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지적제조사 현장사무실 운영 성과와 중



양규제개선 적극 건의를 통해 지적제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액 하향으로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 부담을 완화한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4건의 우수사례 발표 후, 현장평가단 심사를 통해 삼척시는 공감상을 받아 시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보전을 위한 근거마련’이 최우수상, 강원특별자치도 치수과의 ‘도민 중심 맞춤형 폐천관리 일괄행정서비스’가 우수상, 화천군의 ‘주민 눈높이에 맞춘 산림소득 보조사업 개선’이 공감상에 각각 선정됐다.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일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모집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료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위령,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구독자 제위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 위에 평강이 가득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본 신문 방송은 구독자님들의 구독료 및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가 발행된 지 벌써 19주년을 맞이 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기도와후원이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 언론사는 후원과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으며, 항상 더 좋은 신문과 방송이 되기를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저스타임즈 cjtn tv

이사장 박종서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농협 : 455030-56-005509
국민 : 455-21-0339-406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 및 문서방송 선교 후원은 반드시 실명으로부터 드리며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년 구독료 50,000원

지저스타임즈

경기도 부천시 지양로 176번길 32호
THE Jesus Times 대운빌라 2층 202호
TEL.032)672-3031(FAX 겸용) H.P 010-5468-6574
E-mail : cpj5037@daum.net jtntvcpi@naver.com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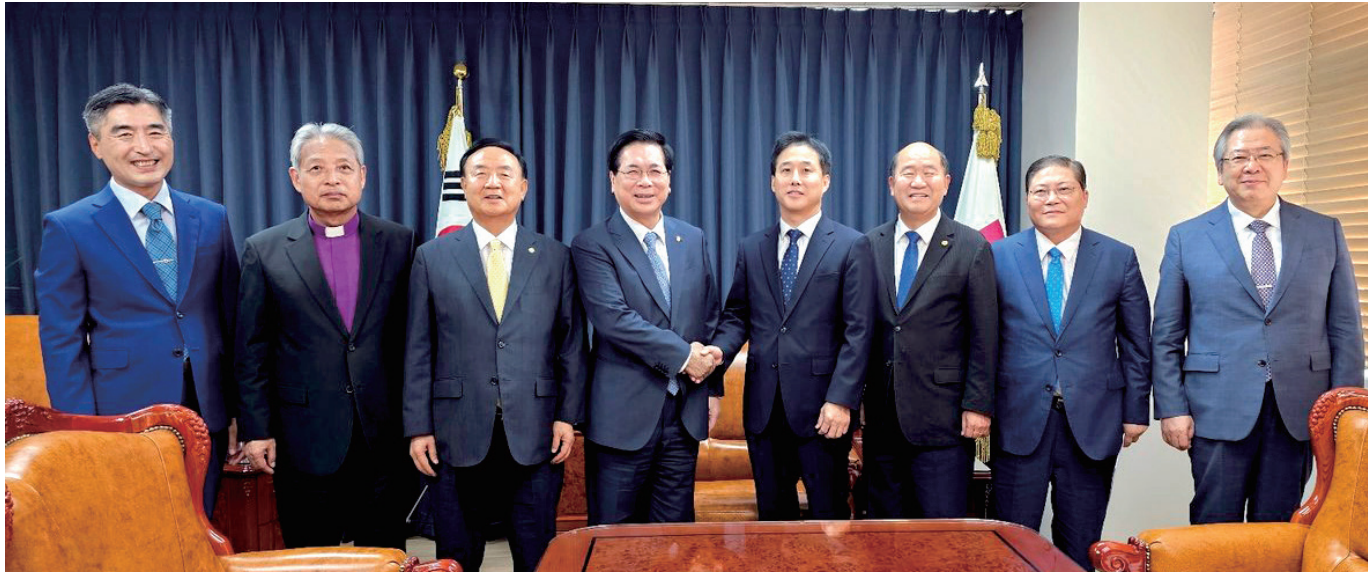
상담목사 박영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문체부 정용욱 종무실장 한교총 방문 환담



18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 정용욱 종무실장이 신임인사차 본회를 방문해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공동대표회장 송홍도 목사를 만나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정실장은 금번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퍼리 행사를

에 한교총이 적극 지원을 나서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했다. 이에 이영훈 대표회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상임회장의 직무

여서 예정백석 총회장 장중현 목사, 기감 감독회장 이철 감독, 기침 총회장 김인환 목사,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목사, 새로남교회 담임목사 오정호 목사가 동석했다.

8월 넷째 주일
「소강석 목사의 영혼 아프리카」

“진심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지난 주 금요일에는 한교총 상임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미 총회장도 지났고 한교총 회장을 지냈지만 지금까지 출근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외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일 때도 연합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그때는 한기총이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표회장 임기가 지난 후에도 연합기관 통합위원장 직을 맡아 세 부합의서까지 도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단과 교단장의 이견으로 인해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합의 도출해서 완전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대표회장인 이영훈 대표회장님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주요 교단장들이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였고 때문에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일부 몇 교단장들의 이견이 표출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견은 옛날에 교단장들이 똑같이 주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교총 실무자에게 한기총에서 이단자들을 어떻게 제명했거나 행정보류를 시켰는가 등을 다 드러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 될 거라고, 일부러 세세한 걸 드러낼 필요가 없고 선통한 후에 해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교단에서 또 생각지도 못한 주장들이 제기된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앞서서 연합기관 대표 회장을 한 사람으로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통합위원회 서기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견들이 나오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합기관을 하나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100%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끼리만이라도 얼마나 만족하고 행복한 케슬과 같습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모여서 의견 다툼을 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아니,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왜 기독교가 무너지고 망했습니까? 그건 분열과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반기독교 악법을 막기 위해 가장 최후의 전선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도 정부와 맞서서 예배 조율과 협상에 나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견이 있을 때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표당황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분열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 줄 아십니까? 반기독교 정서를 갖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종교를 길들여 이기를 좋아하는 편인 것입니다. 저는 보수주의와 정교도 개혁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결코 이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공적교회와 공익을 위해서는 이단을 제외하고 하나로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연합사업을 강조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얻

제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는데, 원래는 9월 총회 전에 마무리를 짓고 총회 때 보고 하려고 했지만, 통합은 하되 결의는 총회 후에 하자고 하였습니다. 지난주는 비서들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다른 부목사님이 운전하고 갔습니다. 오면서 하는 말이 “정말 왜 저렇게 연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할까요? 정말 제 심장도 쪼여가는데 목사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와 인식 그리고 의식의 차이일 뿐이지요.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얼마나 넓은 걸 보느냐에 대한 사고의 차이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선악을 넘어서, 옳고 그름을 넘어서 진심을 다했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진심을 다했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교계 연합기관이 분열을 안 했으면 이렇게 다시 연합을 하려고 몸부림을 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열을 하였고 때문에 계속 또 다른 분열이 연쇄작용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영화 ‘오펜하이머’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오펜하이머가 가장 고민하고 우려했던 것은 자신이 만든 원자폭탄으로 인한 파멸의 연쇄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소폭탄 제작을 반대하고 원자력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계 분열의 연쇄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연합을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늦은 여름밤인데도 수매미들의 노랫소리가 무성합니다. 저 매미소리와 함께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한국교회 공적교회와 공적사역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리고 진심을 다 바쳤노라고”고 말합니다.

경기 교동협의회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안산의 25개교마다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다.”



경기도교동협의회연합회(회장 김태수)와 부곡교회 담임(진영화 목사)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 부곡교회에서 부곡동 100명의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함께 제1회 0691어르신 초청잔치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동협의회연합회 김태수 회장의 총 기획 아래(기도-전영화, 경교연소개-전희일, 식사기도-김바울, 광고-윤예숙) 진행되었다. 김태수 회장은 25개교 모든 교회와 동네가 하나가 되어 어르신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주민을 섬기겠다는 다짐 및 선포를 하였다. 제1회 0691 프로젝트는 부곡교회 전영화 목사와 성도들이 삼계탕과 선물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기쁨의 동산교회 연주팀이 아름다운 노래로 식사를 하는 동안 즐거움을 주었다.

경기도교동협의회연합회는 안산시 25개교 교회와 동이 하나가 되어 소외되고 고통 받는 안산 시민들을 섬기며, 모든 안산 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각동의 회장단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안산 25개교 중 23동의 창립을(김태수(이동), 김바울(선부1동), 심재근(부곡동), 윤예숙(중앙동), 최철원(고잔동), 박두환(초지동), 임승열(신길동), 정준영(사이동), 임창신(원곡동), 김두식(백운동), 정상열(원곡동), 김택룡(반월동), 서용호(수암동), 김우경(대부동), 백경숙(선부3동), 박유주(일동), 공병철(와동), 장덕수(사동), 유점식(본오3동), 강범석(본오2동), 황재국(해양동), 최용우(선부2동), 장만수(성포동)) 진행하였다.

경기도 교동협의회연합회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정기 모임으로 클린데이로 25개동을 돌며, 지역 거리정화 활동 및 지역주변을 살피며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다. 또한 9월에는 안산의 작가

와의 만남 통해 문화 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경기도교동협의회연합회는 안산시 25개교 교회와 동이 하나가 되어 소외되고 고통 받는 안산 시민들을 섬기며, 모든 안산 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각동의 회장단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안산 25개교 중 23동의 창립을(김태수(이동), 김바울(선부1동), 심재근(부곡동), 윤예숙(중앙동), 최철원(고잔동), 박두환(초지동), 임승열(신길동), 정준영(사이동), 임창신(원곡동), 김두식(백운동), 정상열(원곡동), 김택룡(반월동), 서용호(수암동), 김우경(대부동), 백경숙(선부3동), 박유주(일동), 공병철(와동), 장덕수(사동), 유점식(본오3동), 강범석(본오2동), 황재국(해양동), 최용우(선부2동), 장만수(성포동)) 진행하였다.

경기도 교동협의회연합회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정기 모임으로 클린데이로 25개동을 돌며, 지역 거리정화 활동 및 지역주변을 살피며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다. 또한 9월에는 안산의 작가와의 만남 통해 문화 사업도 준비 중에 있다. 세상의 모든 시계바늘이 멈춰도 우리는 심장은 멈추지 않는다. 경기도교동협의회연합회는 계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안산 백운성 기자

성과관리 수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충남도가 올해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30일 도에 따르면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2021년 우수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2

체 중 도가 유일하며, 올해는 대상 수상기관이 없어 최고 평가 기관이라는 영예도 안았다.

도는 이날 (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 주최로 서울스퀘어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평가포럼에서 시상 후 최고 평가기관으로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우수사례는

평가포럼 및 발표집을 통해 전국에 공유될 예정이다. 한국평가감사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자체평가 수준 개선을 통한 성과관리제도의 정착 및 지방자치 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성과평가 계획 △성과추진 △성과관리 현황 등 3개 분야 6개 항목 19개 지표로 세분화 해 평가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예장 진리총회 제 108회 정기총회

주제 :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중회(딤후 4:1~5절)

총 회 장	서 기	회의록서기	회 계	감 사	총 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전상열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김정미 목사 새에루살렘교회	 박명자 목사 생명수교회	 정요한 목사 승천교회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오전 11시
 장소 : 주사랑교회(총회장 장한국 목사 시무)
 주소 : 아래와 같음...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전상열 목사 010-453-1719

靑松 건강칼럼(915)... Cholesterol Day

성매개감염병 증가세

성매개감염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靑松 박명윤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경영연구소 이사장)
靑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최근 일본에서 성병(性病)인 매독(梅毒)이 급증해 비상이 걸리면서 국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SNS 등에서는 “일본 여행 중 유흥업소를 들렀거나 출장을 다녀온 사람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올해 1월~5월 사이 한국인 관광객 258만명이 일본을 찾았으며, 일본인 66만명이 한국에 왔다.

이웃 나라 일본에선 지난해부터 매독(梅毒)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았으며, 역대급 속도로 환자가 불었다.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조차 부족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도쿄도(東京都)에서는 3월부터 의명으로 매독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무료 검사소를 설치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매주 발표하는 감염증 발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14일까지 매독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수는 51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30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13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매독 환자의 연령을 보면 남성은 20~40대가 77%, 여성은 20대가 69%를 각각 차지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통계 분석이 시작된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약 한 달 빠른 속도로 매독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일본의 매독 확진자 누계는 1만2966명이었다. 당시 매독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이었으며, 전년(2021년) 대비 1.7배 수준에 달했다. 일본 전역인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에서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일본 언론은 전문가를 인용해 다양한 원인을 내놨다. 일본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국경 문을 걸어 잠그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에도 매독 환자가 급증했다는 점을 들어 해외 유입보다는 국내 감염 확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면서 SNS와 데이트 앱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性行爲)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질병관리청(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에 따르면, 올해 2~7월 성매개감염병(性媒介感染病) 7종의 누적 발생건수는 1만897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7516건)보다 7.7% 증가했다. 성매개감염병 7종 가운데 매독(梅毒)의 누적 환자 수는 201명으로 전년 동기(189명) 대비 10% 증가했다. 국내 매독 확진 건수는 2021년 337건에서 2022년 401건으로 20% 가까이 늘었다. 매독 환자 중 20~30대 남성이 전체 환자의 68%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매독을 4급 감염병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관리법을 개정했다. 질병관리청(청장池榮美, 런던대학 바이러스학 박사)은 성매개감염병의 월별 국내 발생 현황과 증감 추이 등을 담은 ‘성매개감염병 감시 월간 소식지’ 창간호를 지난 8월 17일 발간했다. 소식지는 국내 성매개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 기초자료 수집, 연구 활용, 예방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발간된다.

‘소식지’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표본감시 중인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침구 콜딜름,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 등 7종의 성매개감염병의 월별 신고현황에 기초한 통계가 수록된다. 성매개감염병 신고자료는 전국 574개 성매개감염병 표본감시 기관(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보건소 등)으로부터 신고된 것으로, 질병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성매개감염병(STI)이란 일차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을 말하며, 30종류 이상이 있다. 흔한 성매개감염병에는 매독(syphilis), 임질(gonorrhea),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클라미디아 감염증(Chlamydia trachomatis), 트리코모나스증 등이 있다. 성매개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4,540만명(2015년 기준)이 매독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600만명이 새로 감염된 환자였으며, 107,000명이 사망했다. 1940년대에 페니실린(penicillin)을 이용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감염률이 극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1세기 들어 많은 국가에서 감염률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종종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페니실린(PCN)은 최초의 항생제(抗生劑)이다. 푸른곰팡이로 불리는 Penicillium notatum와 Penicillium chrysogenum에서 얻은 대표적인 베타-락탐계열 항생제(antibiotics)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Alexander Fleming, 1881-1955)이 1928년에 발견했다. 페니실린의 등장과 함께 인류의 평균수명이 1950년대 50대에서 현재 80대로 늘었다고 본다.

〈매독〉이란 스피로헤타(spirochete)과에 속하는 세균인 트레포네마 팔리둠균(Treponema pallidum)에 의해 발생하는 성병이다. 매독균은 피부와 점막의 작은 틈이나 찰과상이 난 부위로 체내에 들어간다. 피부개양은 성기 부위, 질, 항문 등에 잘 발생하지만, 입술과 구강 내에도 발생할 수 있다.

매독을 뜻하는 ‘syphilis’라는 명칭은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시인인 지롤라모 프라카스토로(Girolamo Fracastoro)가 1530년에 쓴 〈매독 또는 프랑스병〉라는 책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목동(牧童)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프라카스토로는 1546년 발간한 의학서 〈전염과 전염성 질병에 관하여〉에서 ‘syphilis’라는 단어를 〈매독〉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재차 사용하여 이것이 굳어져 오늘날에 이르렀다.

주로 성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매독은 역사적인 기원이 모호하여 여러설이 존재하지만, 고대로부터 이미 유럽에 존재했었다는 설보다는 남미대륙의 풍토병(風土病)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콜럼버스가 1차 항해를 마치고 1493년 3월에 귀국한 이후, 선원들에 의해 매독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에서 매독이 크게 유행하자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프랑스병’이라고 불렀다. 이와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 병’이라 했다.

한반도에서 매독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14년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로 매독을 ‘천포창(天疱瘡)’이라 했으며, 1510년대에 중국을 통해 서양에서 전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양매창(楊梅瘡)’이라 하며 서양에서 전래된 성병임을 밝히고 있다. 조선후기에 개항과 청일전쟁 등으로 매독 환자가 증가하였다. 영조 때 학자인 성대중이 쓴 청성잡기(靑城雜記)에 의하면 특별한 치료제가 없기에 매독 환자 10명 중 9명은 죽었다고 한다.

▲매독균 이미지

매독은 1기·2기·3기 매독, 잠복매독, 선천성 매독 등으로 나뉜다. (1기 매독(primary syphilis))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염성 병변과 직접 성적으로 접촉하여 전파된다. 접촉 이후 대략 2~6주 뒤 경성하감(皚은개양)이라고 하는 피부 병변이 나타난다. 경성하감의 안에는 매독균이 존재하며, 성기 외의 다른 부위에 발생하기도 한다. 림프절 비대는 경성하감이 형성되고 7~10일 뒤 발생한다.

〈2기 매독(secondary syphilis)〉은 첫 감염 이후 4~10주 정도 뒤에 발생한다. 증상은 다양하며, 보통 피부, 점막, 림프절에 증상이 발생한다. 손바닥과 발바닥을 포함한 몸통과 사지 말단에 대칭적이며 불그스름하거나 분홍색의 발진이 생길 수 있다. 다른 발생 가능한 증상에는 발열, 인후통, 권태감, 체중 감소, 탈모, 두통 등이 있다. 드문 증상에는 간염, 콩팥질환, 관절염, 골막염, 시신경염 등이 있다.

〈3기 매독(tertiary syphilis)〉은 첫 감염 이후 3~15년쯤 뒤에 발생할 수 있으며 세 가지 다른 형태(고무종매독, 신경매독, 심혈관매독)로 나뉘어진다. 고무종매독(gummatous syphilis) 또는 후기양성 매독은 첫 감염 이후 평균 15년 뒤에 발생하며, 만성 고무종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무종은 종양처럼 생긴 염증성 병변이다. 신경매독은 중추신경계에 발병한 매독 감염이며, 매독의 어느 병기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심혈관매독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매독성 대동맥염이다.

〈잠복 매독(latent syphilis)〉은 증상이 없는데 혈청학적으로 감염의 근거가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매독을 치료받지 않고 내버려 두면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잠복 매독으로 진행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초기 잠복 매독은 감염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며, 감염에서 2년이 지난 뒤에는 후기 잠복 매독 시기로 진입한다. 잠복 매독 시기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계속되기도 한다.

〈선천성 매독〉은 임신 중이나 출산 시에 산모에서 아기로 전파된다. 선천성 매독에 감염되면 유산, 사산, 신생아 사망의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매독 치료 후 임신할 것을 권고한다. 선천성 매독에 감염된 신생아 중 3분의 2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생후 첫 2년간 나타나는 흔한 증상에는 간과 비장이 커지는 간비종대(肝脾腫大), 발진, 발열, 신경매독, 폐렴 등이 있다.

매독의 선별검사로는 비매독균 검사인 VDRL(Venereal Disease Research Laboratory)과 RPR(Rapid Plasma Reagin) 두 가지 검사가 있다. 이 검사들은 결과를 빨리 알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매독이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위양성(false positive)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선별검사서서 양성인 경우는 매독균에 대한 특이적 검사인 FTA-ABS(Fluorescent Treponemal Antibody Absorption) 검사나 TPHA(Treponema Pallidum Hemagglutination Assay)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신경매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척수액(腦脊液) 검사를 해야 한다. 매독균이 전신으로 퍼지는 시기에는 ‘신경매독’을 일으킬 수 있다.

치료는 환자가 매독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조기 발견 시 페니실린 항생제로 완치가 가능하다. 신경매독은 후유증이 남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뇌척수액검사나, BMRI, 뇌CT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2년 이상된 만기 매독 중 후기잠복매독 단계에서는 3차매독이나 신경매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오랜 방치 후에는 여러 장기나 조직에 파괴를 일으키고 치료를 해도 손상된 장기나 뇌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성매개감염병의 가장 확실한 예방은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을 피하는데 있으므로 스스로의 주의가 필요하다. 남성은 성관계 시 라텍스 콘돔(latex condom)을 사용하는 것이 성병 예방에는 최선이다. 그러나 피임기구를 사용해도 감염자의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와 접촉하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임신 예정 여성은 임신 전 매독 반응 검사 후 매독에 걸렸다면 치료 후 임신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박명윤 칼럼(23~58)

치매를 예방하자



靑松 박명윤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경영연구소 이사장)
靑松 건강칼럼(762)... Cholesterol Day
콜레스테롤(Cholesterol)과 건강

친구를 매일 만나고 신체를 움직이고/
활발한 두뇌활동 인지기능 향상하고/
등 푸른 생선 먹으며 걷기운동 힘쓰자.

위 시조는 필자의 고등학교(대구 경북고) 동창생 인송(仁松) 박철구(朴喆求, 84세) 님의 제4시조집 <노송의 계절>에 실려 있는 글이다. 어제(8월28일, 월요일) 오후 필자가 헬스장(Happy Fitness)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아파트 현관 우체함에 끼여 있는 박철구 동창이 보낸 <노송의 계절>을 꺼내서 읽었다.

인송은 문화체육관광부 부이사관으로 정년퇴임하였으며, 녹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또한 서울 충현교회 은퇴 장로이다.

인송의 저서에는 시문집 <노송의 세월>, 시조집 <노송의 노래> <노송의 향기> <노송의 기백> <노송의 계절>, 수필집 <노송의 추억>, 그리고 기행문집 <노송의 나들이> 등이 있다.

인송은 1996년 <시조생활>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조분과),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 세계전통시인협회 한국본부 회원,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한국아동시조시인협회 회원, 나라사랑문인협회 회원, 한국동양서예협회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치매(癡呆)는 노인들이 암(癲)보다 더 무서워하는 질병이며, 고령사회에서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치매 의심 증상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최근 일 등 기억력 상실, ▲약속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 ▲언어사용이 어려워짐, ▲시간과 장소를 혼동(지남력 상실), ▲판단력이 감소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자주 행함, ▲추상적인 사고능력이 문제가 발생, ▲물건을 간수하지 못함, ▲기분이나 행동의 변화, ▲성격의 변화, ▲자발성의 감소 등이 있다.

치매예방 수칙 3.3.3.은 다음과 같다. <3권(勸)즐길 것>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걷는다, ▲식사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다, ▲부지런히 읽고 쓴다. <3금(禁) 참을 것>에는 ▲절주(節酒)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신다, ▲금연(禁煙)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뇌손상 예방을 위해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3행(行) 행길 것>에는 ▲건강검진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소통으로 가족과 친구에게 자주 연락하고 만난다,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매년 치매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받는다.

다음호에 계속

빠른 장례 우수 기업 선정

한국의전협동조합

01
단순 장례식
120 만원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령과 대령 입관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화장시 : 목함 매장시 : 횡대

02
3일장 기본 장례식
185 만원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영좌설치 : 빈소용품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령과 대령 입관
고급리무진 or 장의버스 선택
화장지 . 황토봉인함 매장시 – 횡대

03
3일장 고급 장례식
220 만원

임종시 이송차량 관내제공
영좌설치 : 빈소요용품
고인 용품 : 관, 수의, 입관용품
염습 : 소령과 대령 입관
고급리무진 and 황초봉인함 매장시 – 횡대

필요시 선택 사항



도우미 1인 10만원
남 상복 1set 5만원
여 상복 1set 5만원

시설의 발생비용 [별도비용]

제단 장식

영정제단장식빈소와환경에따라선택

전문 도우미

장례일정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

남 상복

와이셔츠, 넥타이 포함 종교, 가족환경에 따라 선택

여 상복

종교, 가족 환경에 따라 선택

1644-2542/010-3788-1130

글로벌 교회연합 국제 선교대회 내달 9일~10일 반석성결교회



▲ 대회장 정윤명 목사의 사회로 제18회 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다. ©크리스천비전

제19회 글로벌 교회연합 국제 선교대회(대회장 정윤명 목사, 월넛크릭 GIM교회 담임)가 오는 9월 9일(토)부터 10일(주일)까지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 할지어다”(시 96:3)라는 주제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플레즌트에 위치한반석성결교회(담임 스킷버질린 목사)에서 라이브 스트림 <https://rockbiblechurch.com>으로 열린다.

2023년 국제선교 대회는 샌프란시스코, 산호세지역, 남가주 미국 주류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교회를 포함, 이스라엘, 이란,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예멘, 시리아, 팔레스타인, 터키, 레바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라틴아메리카, 인도, 태국, 홍콩, 에티오피아, 페루, 아마존 정글 지역 등 35개 민족을 대

상으로 미 주류교회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연합하여 선교패널, 메시지, 찬양, 각 나라의 선교보고, 선교부스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GIM(Global International Missions)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35개 민족의 각 지역 선교보고와 미국 내 각 지역의 목회자와 선교사들로 구성된 패널위원들의 미국교회의 사

명을 제시하는 선교패널로 진행된다. 올해 메시지는 9일 빅터 차야시리소본 목사(캘리포니아 남침례회 총회장)가, 10일(주일) 알렌 크로스 목사(북가주 페탈루마밸리교회 담임, 국제선교전략위원)가 담당한다. 각 선교현장에서의 한국, 타이완, 필리핀, 이스라엘, 아랍, 터키, 에티오피아, 이란,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올네이션스 선교의 발표들이 있을 예정이다.

대회장 정윤명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의 진리와 공의’라는 주제로 복음적 교회들의 목회자와 선교사들로 구성된 패널리스트들이 미국과 열방을 향하여 ‘진리와 공의’를 함께 토의하며, 지구촌에서 펴바받고, 자유 위임을 받는 국가와 교회를 위하여 미국교회개혁을 할구체적인역할과 사명도 함께 논의된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지역과 각 주의 복음적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미국과 열방을 위한 연합기도 순서도 갖게 된다.

이번 대회는 반석성결교회를 비롯,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 강영해), 크로마 하프 연주, 타이완교회 위임댄스, 라틴노와 필리핀교회 찬양팀이 참여한다. 또한 이번대회 참여하는 여러 민족교회들이 선교 현장에서 선교부스 전시 등도 있을 예정이다.

▶문의: (925)639-9527

문체부 정용욱 종무실장 한기총 예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균형 있는 종무실의 역할 강조



문화체육관광부 정용욱 종무실장은 30일(수)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예방하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환담을 나눴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임명을 축하하며 교계와의 소통에 종무실이 균형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여러 의견을 전달했다. 신임 인사자 예방한 자리에서 정용욱 종무실장은 “많은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용욱 종무실장은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40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 안전환경정책관 등으로 근무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 대통령비서실 국민제안비서관을 거쳐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임명됐다.

충현선교교회 ‘화요 사랑방’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 화요 사랑방 모임이 오는 29일 개강한다. ©크리스천비전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 5005 Edenhurst Ave) ‘화요 사랑방’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하며, 찬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11주 코스 과정으로 화요사랑방 모임이 오는 29일 개강해서 11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50분 충현선교교회에서 진행된다.

‘화요 사랑방’은 누구라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은 환영한다. 화요 사랑방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서로가 돕고 무엇이든 지 물어보면서 신앙을 체험하게 되는 과정으로 테이블 별로 나눠서 그날 주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함께 나누게 된다.

제27기 화요 사랑방 디렉터를 맡게 된 서태희 집사는 “대화를 통해 기독교를 배우며 이민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

는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이며,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누가 작성한 것인가? 등을 서로 대화를 통해 배우는 사랑방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화요 사랑방은 새로 기독교를 알고 싶어 하는 비 기독교인들은 물론 신앙의 기본을 새롭게 다지기를 원하는 기존 성도들과 타 교회 성도들도 참석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열린 프로그램이다. 참가비는 교재 포함 29달러다.

▶문의: (818)549-9191

정치 판사들이 사법부의 중립성을 해친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통하여, 국가권력 간의 힘의 편중과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정부)는 국가의 내치와 외치를 담당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 또 입법부(국회)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체계를 확립하여,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국가의 모든 행정이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반면에 사법부(법원)는 법이 정한 규정 안에서 국가의 통치와 정치 행위, 국민들의 준법 행위가 이뤄지는지, 혹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는지를 판단하

여, 국가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행정부나 입법부는 어느 정도 정치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 그러나 사법부는 어느 정파나 정치적 색깔에 관계없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양형(量刑)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여러 권력들이 합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견제역할을 감당한다.

따라서 법관들은 “법관윤리강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지켜나가야 한다. 법관이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는 법관으로서의 소명(召命)이 부족한 것이다.

법을 뜻하는 한자 법(法)은 본래 법(灋)자인데, 이는 水(물 수)+廌(해태 치)+去(갈 거)의 형태로 되어있다. 여기서 물수(水)는 흐르는 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해태 치(廌)는 시비(是非)나 선악을 판단한다는 상상의 동물이 뿜고 밀어버리듯 공평정대함을, 갈 거(去)는 해태(公정)에

의해 사람이 처벌받는 모습을 말한다. 결국 법(法)은 불로초듯, 공의롭게 판결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법을 적용하는데 바르며 공정하게,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은 법관들의 중요한 역할이며, 몫이다. 다시 말해서 법관들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한 법사고(思考)와 냉정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한 정치인에 대하여, 그가 6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비판을 한 사건에서, 징역 6개월의 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이 사건을 검찰에서는 벌금으로 약식기소했으나 오히려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이런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인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공인(公人)이 맞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젊은 판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판사로 임용된 뒤에도 그랬고, 그 전에 법과대학생 때는 더욱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고 한다. 법관 개개인이 정치적 성향이 있고, 정치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정치적 편향성

을 보이는 것은, 결국 그가 판결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미쳐서, 사법부의 신뢰감을 떨어트리는 것이 된다.

이는 법관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법부의 법체계와 법관들의 권위 추락을 부추긴 것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 그는 법원의 민주화를 꾀한다는 빌미로, 부정판사 승진 제도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사무분담위원회 도입 등을 통하여, 능력도 공정성도 떨어지는 자기편 사람들을 대거 중용하여 사법부의 좌편향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2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법학자들은 아직도 법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를 찾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아직도 법의 개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겨우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세워주고 밀어주는 것으로 법의 정의를 가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궁금하다.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나 정권의 눈치를 보는 법관들로는 어렵다. 스스로가 법 앞에 충실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소명감이 있어야 하고, 자유대한민국 법관의 결기(潔己)가 있어야 한다.

불어라 성경의 불!

삼만교회후원 및 백만성도 대성회 감사

예수사랑 후원예배 (인천영광교회 2층 본당)

장세로부터 예수님 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교회

매주(월)저녁~(금)저녁
오후 2시 / 저녁 7시
2층 예배당

감사



조강수 목사



이선한 목사
이선한 / 문의 010-8291-8081

오시는 길: 인천 1호선 동암역 북광장에서 593번 버스 승차하시고 종점에서 하차(영광교회)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 (구) 가좌4동 4-24 TEL. 032)577-1225 FAX 032)581-3723

▶계시록 12장 강해(66)

일곱 머리 열뿔, 적그리스도의 출몰

(지난번에 이어서)

이러다가 출생을 하게 되면 끝납니다. 넘 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없고 타락이 없습니 다. 하지만 출생이 되기전까지는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천하고, 가까운 데 에서부터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역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우리들이 이와같이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더라. 4절: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서 있더라.

붉은 용의 이적: 하늘의 큰 이적은 해 임은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큰 이적은 아닙니다. 큰 이적을 위한 이적입니다. 붉은 용은 마귀를 말하는데 마귀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일곱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적그리스도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열 왕관이 있습니다.

마귀가 일곱 머리에 일곱 왕관을 썼다고 함은 일곱 제국을 주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애굽부터 시작하여 적그리스도 왕국까지 일곱 제국을 세워 마귀의 권세,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 하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의 꼬리로 하늘의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하는데 이는 용의 끄트머리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사랑과 평화, 정의와 같은 말을 하지만 그 꼬리는 영혼을 죽이는 잘못된 독이 있는 것입니다. [사 9:15]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되어있는 것과 같이 마귀가 거짓선지자를 세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종말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창세 전 마귀가 타락할 때 다른 천사들의 삼분의 일을 타락시켜 땅으로 떨어뜨렸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는 창세 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재림 전, 종말에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마귀가 그 꼬리로 살짝 번질시켜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삼분의 일이 타락되는 것입니다. 또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한 그 용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삼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삼킨다고 한 것이므로 순교자로 세워지고, 144,000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부인해서 순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순교자로 세워지면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러한 영적인 사건들을 우리들이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본 것을 가지고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목을 걸고 증거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5절: 그녀가 사나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절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돌려 올라가더라. 6절: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해 임은 여인이 낳은 사나아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낳은 사나아아 역시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는 천주교에서 비롯된 사상으로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것인데 여인 머리 위에 빛으로 후광이 나타나고, 별을 쓴 것 같이 묘사하고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형상화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으로 거짓포장 합니다. 실상은 바벨론의 태양신과 여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정치단체인데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목사님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는 곧 있으면 판명되게 됩니다. 천주교가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제 그 정체가 판명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으며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특히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인이 마리아가 아니고, 낳은 사나아아가 예수님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낳은 사나아아도 한명이 아니라 해 임은 여인이라는 특별한 교회, 금촛대 교회가 낳는 [계 13:8]의 일찍 죽임당한 어린양이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나아이는 [계 13:8]의 순교할 자로 녹명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녹명된 자들 중 환란 날에 사역할 종들을 [계 3:5] 말씀과 같이 그 종의 책에 녹명되어 있는데 그 수가 바로 144,000입니다. 이들 역시 사나아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녀가 사나아아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우리들이 낳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 12:1]의 하늘의 큰 이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낳는 역사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낳은 시점은 각기 다릅니다.

또한 낳은바 되어 진 사나아아가 낳자마자 바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고문도 받고, 죽임도 당하게 되어 그 끝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계 11장]에서 두 증인들이 최후적으로 순교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한 후, 이를 마치고 죽임을 당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늘로 들려올라간 시점은 정확하게 전 삼년 반이 지나고 후 삼년 반의 시작점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철장권세: [계 2:26]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11장]에서 두 증인들이 예언할 때에 예언의 권세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령하나님이 주관하여 마귀나 어둠의 권세들이 범접할 수 없으나 환란 날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세우셔서 그들이 주도하는 때로 은혜시대의 권세와 능력으로는 어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날에는 [계 11:5-6] 말씀과 같이 대적하는 자에게 입에서 불이 나와 죽이게도 하며 하늘을 닫는 권세와 땅을 쳐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권세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선지자들도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의 내용은 거짓된 것으로 두 증인을 상대로는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 19:15]에서 주님이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민족들을 찢 것이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을 뒤따르는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 역시 이러한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철장권세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입니다. 먼저 이 철장권세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철장(鐵杖)은 철로 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인격체를 말하는 것으로 [출 4:20]의 모세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든 것과 같습니다. 만일 모세 손에 있는 지

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했으면 모세 따로 그 손에 있는 지팡이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인 모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시 23:4]에서도 주의 지팡이가 나오는데 이 지팡이가 나단선지자로 다윗을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환란 날에 사역할 종이 되려면 권능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섭렵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하여 공부하고 연단 받은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이 돼서야 그것이 끝나고 사역을 한 것입니다. 즉,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들이 끝나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란 때에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환란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철로 된 지팡이어야 합니다. 나무로 된 지팡이나 갈대로 된 지팡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철로 된 지팡이는 철 용광로에서 만들어집니다. [신4:20]에서와 같이 철 용광로에서 흙이나 다른 불순물은 없애지고, 오직 철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철 용광로에서 철 지팡이가 되기까지 흙이나 여러 다른 불순물들을 없애는 것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에서 연단 받는 것을 말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 안에 있는 교회로 연단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 용광로인 교회를 통하여 연단 받으며 흙이나 다른 불순물들이 다 녹아지고 없애져서 오직 철만 남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철 지팡이입니다.

흙은 육신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이성적인 요소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 지팡이가 되었는데 이 지팡이가 땅에 박혀 흙이 문으면 썩습니다. 세상적인 요소들을 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 지팡이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철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철 용광로에서 불로 철이 되게 하는 역사, 그 불이 바로 영광의 복음, 첫째부활의 진리의 말씀이며 그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일곱 열매입니다. 금촛대 교회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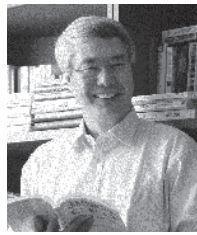
여인을 위해 예비하신 곳: 여인을 위해 마련하신 곳은 원문으로 ἡτοιμασμένον [헤토이마스메논]입니다. 이는 과거수동태 동사로 하나님이 이미 과거적으로 마련해놓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사랑의 클리닉<26>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라

황성주 박사
(사랑의클리닉)



얼마 전 한 친구가 찾아왔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최근에 출간한 필자의 책을 읽고 건강을 위해 한 가지 결심을 했노라고 했다. 그 결심인즉 '반드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결심 하나로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나 '일단 시도해 본다'는 태도변화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셀러리맨이 반드시 아침식사를 하겠다는 결심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아침식사를 하려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일찍 일어나야 식욕이 생긴다. 거기에서 단 10분이라도 산책이나 운동을 결하면 더욱 식욕이 왕성해진다. 위장도 잠을 깨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생수나 과일주스를 마시고 한참 후 식사를 하면 위장운동이 활발해져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려면 조금이라도 일찍 자야한다. 일찍 자려면 귀가시간이 빨라야 하고 그만큼 아내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을 대할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포근한 가정에서 사람이 담긴 음식을 먹으니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된다. 부부에도 깊어지고 자녀와의 대화시간도 풍성해져 가정의 기능이 정상화된다. 존경받는 남편, 인정받는 아내로서 이른바 가정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저녁모임 대신 점심약속이나 조찬 모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출근시간에 쫓겨 아침을 거르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다. 대개의 경우 음주를 포함한 저녁과식은 늦은 귀가, 늦잠, 아침결식으로 연결된다. 정신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식욕이 생길 리 만무하다. 오히려 꼭 아침을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쫓기는 듯한 아침식사가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무겁고 불쾌한 오전근무로 연결되어 역효과를 초래한다. 아침결식은 맥 빠진 근무시간으로 직결된다. 활동할 수 있는 열량이 없는 상태에서 일 하거나 도무지 식욕이 없다. 뇌는 깨어 활동하고 있으나 몸은 아직 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자극이 필요하다. 커피를 마셔야 하고 담배를 피워야 일이 된다. 점심도 맵고 열큰한 자극성 음식을 선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만성영양부족'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오전에 정신없이 지내다 오후에는 시간에 쫓겨 일을 몰아붙이니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이 하기와 스트레스를 풀자니 그냥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반드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라. 아침식사에 정 바쁘면 먹기에 편하고 영양가가 높은 죽을 대용하라. 그것도 힘들면 과일 주스 한잔도 좋다. 활기찬 하루 일과를 위해서 아침식사를 잊지 말라. 성공의 비결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아침식사가 당신의 건강과 성공을 좌우한다. 신앙생활의 성패도 아침시간이 좌우한다. 식사를 매일하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는 것은 바른 신앙성장의 열쇠다. 며칠씩 결식하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한꺼번에 과식하는 방식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다. 조용한 아침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라.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단 한절이라도 매일 묵상하라. 생생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라. 효과적인 시간활용을 위해 성경구절의 선결과 기도제목을 자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른 아침 정신의 공백상태를 TV나 신문보다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하루를 풍요롭고 싱싱하게 해준다는 수많은 증인들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불 목사
(홍익대학 이사장)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욱 목사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23), 3동 101호(한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함동보수증정교회장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담임 백영지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매장터로4, 3층(신촌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視聽牧師 서병민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8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교회



담임 마순덕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매주 금 오후 03:00, 08: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전길 24
☎(061) 281-1671 010-4630-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전리동교회장)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향교회



담임 김관호 목사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철야 오후 8: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79
H. 010-7788-0091 T.032-612-0190

| 예수님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사건 16] |

예수님 재림때 일어날 대환란

(지난 시간 이어서)

다같이 요엘 3:14-21,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움이라” 여기서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깝다는 것은’ [여름 타작마당에 가깝다는 것이다.] 15절에서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고 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해는 진리요, 달은 증인인데 진리도 없고, 증인도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다.

지난호에 이어서 말씀을 마무리한 다면 여섯 가지의 식물들 그들은 이 집회에서 거저먹었다고 했다. 그들은 이것을 자랑한다. 육적인 식물을 먹고도 자랑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몸을 가누지 못하도록 술을 퍼마시고는 그것이 마치 장원급제나 한 모양, 자랑한다. 오늘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살았던 것과 세상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셨던 것을 자랑한다.

민 11:6에서? 이제는 우리의 혼이 (정력)이 말라 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한다. 7절 만나는 마치 고풍풀씨(갯씨) 같고 그 색깔은 마치 델리엄 색깔과 같은 것이라. 고 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두루 다니며 만나는 거두어 드렸다고 했다.

그리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둔다는 말은 별들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고 세상의 철학과 학문에만 몰두할 뿐 아니라, 음녀의 시녀 노릇하기 바쁘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위치는 끝장이 났다. 빛이 없다.

16절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되리니, 그때에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될 것이요,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못하리라. 는 말씀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힐 자들이 없다.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을 통과하지 못한다. 예수가 없는 이방인들, 타국인들, 하나님 없는 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곳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작마당으로 자신 있게 내려가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권능인 이 타작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알곡이 나온다. 또한 도리깨로 얻어터지고, 태창으로 맞아도 짐승에게 밟혀도 인내로 참아야 한다. 이를 잡지 못하고 튀어 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패자이다. 도리깨질을 당할지라도 튀어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의인을 먼저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쭈정이를 먼저 불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휴거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쭈정이를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알곡들만 가져가는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을 악인으로부터 가려낸다고 했다. 막 13:28-37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라고 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이 비유를 배우지 않으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알 수 없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라고 하셨다. 그리고 여름을 알아야 한다.

29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때가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우리 예수님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고 하셨다. 여름이 가까워지면 우리 예수님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때가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이다.

또한 30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여기서 ‘이 세대’를 알아야 한다. 이 세대를 풀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 ‘타작마당’에



정경남 목사

원정인

대해 말씀을 상고하고 있다. 하절기가 되면 타작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다. 타작 준비는 성공한 자들에게는 너무도 큰 축복이다. 너무도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이다. 그러나 타작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망하는 기간이다. 타작마당은 준비가 잘된 자들에게는 너무도 큰 축복이다. 임금님을 만나는 축복이요, 알곡이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는 축복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축제일이다. 기가 막힌 시간이 바로 타작마당에 있다.

가려내서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져진다고 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했다. 악인들을 악인들로부터 가려낸다고 하셨다. 악인들을 악인들로부터 가려낸다는 말씀이 아니라, 악인들을 악인들로부터 가려낸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겠다는 말씀이다. 그곳에서 이를 갈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처럼 먼저 잘못된 것들을 가려내신다. 쭈정이를 먼저 가려내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때에 잘 참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더 좋은 상대는 무엇인가? 많이 터져야 하고 많이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한다. 완전히 고분 가루가 되어야 한다. 성도가 되었을 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증인이 되었을 때이든지,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 나 자신도 그렇게 깨어져야 한다. 여러분! 구약 때에, 제물, 빵, 빵가루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빵을 만들까요? 잘 깨어지고, 고분 가루가 되어야 한다. 고분 가루는 세미한 음성을 뜻한다. 완전히 가루가 된 것이라야 좋은 반죽이 된다.

내가 완전히 깨어져서 고분 가루가 되어야 한다. 고분 가루가 되어야 만이 반죽을 한다. 기름으로 반죽을 한다. 즉 성경의 기름으로 반죽을 한다. 성경의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그 다음에 고루고루 안과 밖으로 기름을 바른단. 밀가루 빵을 만들어서 기름을 안과 밖으로 바른 다음 굽는다. 굽는데 어느 곳에 굽을까요?

(다음호에 이어서)

목양칼럼 35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 죄의 쓴 뿌리가 남아 있다면 제거하라! -

지난호에 이어서

39. 아직은 죄의 쓴 뿌리가 남아 있다고 믿습니까?(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에 (히 11 : 1~2)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9 : 29). 우리가 선히해야 할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히 12 :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요 11 : 40). 하지만 원수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현실을 통한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자기의 것, 곧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낫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

우리는 더욱 경계하여 진리(하나님의 말씀)가 아닌 말은 참이 아닌 마귀의 거짓말임을 알고 속이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원수마귀의 거짓말은 처음에 하와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소유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6,000년간의 인간 경작의 시기에 뿌려 놓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찾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명을 부여 받았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발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 10:5-6).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아직 죄의 쓴 뿌리는 남아 있다’는 원수마귀의 거짓말을 멸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쓴 뿌리’가 나오는 대목은 단 하나 히브리서 12:15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가 두려워하고...”. 여기서 쓴 뿌리란 죄의 쓴 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박케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와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신 29 : 18~21).

만약에 이 내용도 불충분하여 그래도 쓴 뿌리가 죄의 쓴 뿌리라고 고집하신다면 이 죄의 쓴 뿌리는 주님이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사해주시심을 믿습니다.

이 본성 안에 있는 죄의 쓴 뿌리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구약의 선지자들도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단지 몸 위에만 머물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기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죽은 영이 살아나 영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일반 남았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롬 8 : 8-10).

일본에게 36년 동안 종 노릇하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지만 일본은 그대로 존재하고 일본 문화에 잠식해 있던 우리나라의 문화를 살리고 일본의 뿌리 깊은 문화를 청산하는 노력을 했던 것처럼, 또한 언제 또 침략해 올지 모르므로 자주국방에 힘쓴 것처럼 죄에서 해방 받은 우리도 동일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해방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써 죄의 잔재(혼의 기억 속에 있는 악의 모양들)를 씻어내고, 또다시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죄(원수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회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우리로 범죄케 하고자, 우리를 종용하고 유혹하는 능력인 죄(원수마귀)는 살아 있기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죄의 잔재를 제거(천국 침노)하고, 자기(이미 죽은 옛사람)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죽음과 부활을 적용함)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몸에게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롬 6:12~14).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승현 목사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심일예배 오후 7:30

총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62-5(봉교리 55-6)
☎ (041)356-0644

『합동보수신학학술원』

성경신학, 실천신학 중심의 실천교육
대학/2년 8학기 대학원/1년 6개월 6학기
(주.야, 사이버(월.화.수.목.금.토)/수시모집
연구원/리더십 과정, 학술원/교수양성
설교전문대학(단기 12주/정규 1년/전문 2년)
서울본원/서울금천구시흥대로97(유동1동 216호)
부산본교/부산 수영구 광서로14-1
본교(수원.인천.대전.대구.광주.청주.전주.울산.창원.춘천.제주

총장 : 차요한 목사(Ph.D) HP:010-5341-123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정민 목사

성서하나님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 (02)465-40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강수 목사

영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6: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
금요철야 저녁 11: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가좌동)

열두광주리 기도원

김평호 목사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고북로 43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혜진 목사

벤엘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 (032)667-7147 H.P 010-3287-1500

한국 기독교
장로회

담임 오승식 목사

평안하고든든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 1부예배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주일오후 : 저녁 8: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요심야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40
(토, 주일 개인별 자유롭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51 ☎ (041)631-9146

행복의집,(시온노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동훈복지재단

대표이사 박동훈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통급환자-1급-3급자 환영)

강원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411. (법인사무국)
T. 033-576-0202 (070-8986-1009, 070-8986-1004) M. 010-7580-1004
F. 033-576-0236 (0504-091-4234) E. dhwf1004@naver.com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정경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명숙 목사

삼성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낮 예배 : 주일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00
금요일예배 : 오후 7:00
매일저녁기도회 : 오후 8:00

경기도 안성시 구례길길 213-8 전화 : 010-4087-346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송명화 목사

세계영성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 오전 10:30
주일오후예배 : 오후 2:00
수요 예배 : 오후 7:30,
목요 온사집회 : 오후 7:30
새벽기도회 : 오전 6:00
금요찬양 일천번제 : 오후 7:40

경기도 부천시 심곡본동 591-6번지 4층(심곡로 9번길 28)
h.p 010-3098-7270, Tax 032-653-9098

백성은 물이로 소이다

도도 이상중 작가



君者舟庶人者水(군자주서인자수). 水則載覆舟(수즉재복주) 순자가 이르기
를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라 물은 배
를 띄우기도 하만와가나면 뒤집기도 한
다고 말했다.
동근 돌 줄지어 (輪石列)자갈 굴러가

가이불개 시위과의 (邇而不改 是謂邇
矣)라 하는데 귀신의 소리만 듣는 자의
귀에는견성(犬聲)으로 들리는 구나 예기
학기편에는 學然後知不足(학연후지부
족),敎然後知困(교연후지곤), 知不足然
後能自反也(지부족연후능자반야),知困

然後自強也(지곤연후자강야) 배워보면
부족하다는 걸 알고,가르쳐 보면 모자란
다는 걸 깨닫는다.

부족하다는 걸 알고 나면 자신을 돌
아보게 되고, 모자란다는 걸 알고 나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 그 큰 집에 있는
것이암석이 아니니 자갈굴리는 소리만
내고 올 밖에는 소음만 들리는 구나. 줄
개들은 천방지축 과잉 충성을 펼치는 날

성경 잠언 6장 16절~19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
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
를 이간하는 자”라는 말씀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할 뿐이다.

광주가 평양인가? 중공영웅과 북한영웅을 기리는가?

광주광역시는 정율성을 기리는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국교회인론회 대표

이역주 목사
이들 무분별하게 반
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를 더욱 고착화 시키고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에서는
광주 출신이라며, 중공(中共)의 영웅이며,
북한의 영웅인 정율성(本명: 정부은)을 기
리는 거리를 조성하고 기념공원을 만드는
데 무려 48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의 세금
으로 철저한 공산주의자이며, 중공으로 귀
화한 인물을 지역 출신이라 하여 이처럼 높
이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과 독립을 위해 싸
웠던 분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 무시이
다.

정율성은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났고,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조선혁명간부학
교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공부하던 중 지린
성에서 주로 활약하던 사회주의 계열의 의
열단에 들어갔다. 그리고 1938년에는 중국
의 좌파 청년들의 모임에 들어가 활동하였
다.

그리고 1937년 연안으로 옮겨 중국 공
산당의 부인예술학원과 중국인민항일군사
정치대학에서 학습하고, 1939년 중국 공산
당의 당원이 되었으며, 공산주의 혁명에 참

여하였다. 그리고 그가 작곡한 ‘팔로군행진
곡’은 중국인민해방군 군가(軍歌)가 되었
다. 그의 대부분의 노래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민족의 비극인 6.25남침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마우쩌둥과 저우언라이
가 한국전에 참전한 중국인민지원군을 돕
게 하기 위하여 1950년 12월 그를 북한에
들어가게 했다.

그는 이때 ‘조선인민군행진곡’을 작곡하
여, 6.25전쟁 때 북한 공산군들을 한껏 고무
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1976년 12월 중국의 베이
징에서 사망하여 중국 공산당이 배려한 바
마오산의 혁명투사 묘지에 묻힌 사람이다.
그는 중공의 영웅이며, 북한의 영웅일 뿐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일은 아무 것도 없
다. 오히려 6.25전쟁에 중공군 일원으로 직
접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람이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가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정율성 유적지 역사공원 조성사
업’을 하고 있는 것은 광주 시민이나 대한
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양이나
베이징을 위한 것이 아닌가 아사스럽다.

광주시가 내세울만한 인물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광주 시민들은 공산주의자
를 떠받들고 추앙하는 일을 광량만 할 것이
가? 이 사업이 올해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데, 말이 되는가?

광주광역시는 이런 해괴한 일들을 당장
중단시켜야 하며,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시
민들의 복지와 문화, 지역발전과 시민의식
을 고취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

고 다시는 자책 없는 사람을 분별없이, 아무
나 기념하고 기리는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

|칼럼|

제단에 제물이 되었는가 (1)

제사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레위기 1:1-17

제사의 중요성은 예배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를 통
해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 신약으로 말하
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셨다.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데 있었다. 즉
우리가 제사(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하
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있어야 한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도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을 입히신 다음에 만나셨다. 아벨
도, 노아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
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지성소에 들
어가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도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제물이 짐승이라면 흠 없고 건
강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때에도 정성을 다
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흠 없는

짐승과 고운 곡식을 뺏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제단에 드려야 한다.

물론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제사 제도가 폐해져 되었다. 구약 때에
짐승을 잡아드리고 곡식을 드린 제사법
은 예수 안에서 없어진 것이다. 폐해져
된 것이다.

그럼 왜 폐하였는가? 구약 때 하나님
께 드려졌던 모든 짐승과 곡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를 예표 한 제사였다. 그러므로 이제 짐
승을 죽이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없다.

(히 10:18) "이것을 사하였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 10:1)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
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고 하였
다.

‘범률제도 일반과 과산면책 회생의 이
해’, ‘탈북브로커 계약문제’, ‘사기대처법,
교통사고관련’, ‘형사범죄대처법’, ‘북한이
탈주민 가사문제’, ‘노동 근로기준법’, ‘민
형사 구별, 소송지원 등’, ‘북한인권 피해
구제’ 등의 제목들과 국회를 방문하여 태
영호 국민의 힘 국회의원까지 만나보는
등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이지만 분단70년
의 산물인 낯선 문화와 사회에 정착하는,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탈북
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담당자(최지선 간사)와 감사진들, 종강식
에 직접 참여해 탈북민들을 격려하고 위
로해준 NKDB 이사장, 소장과 한번 인권
재단 이사장 등 수고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일이 조금은 가까이 온 것 같
다는 아름다운 생각도 해보았다.

인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억눌리는 곳은 하나님
을 대적하는 우상숭배와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만연하는 것
들로 신앙의 자유로부터 시작하여 생존
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여행의요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가 억제되고 짓
밟힘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무지와 세

뇌 가운데 죽여가게 만드는 사상 및 제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족이고 또 우리가 함께
동일을 이루어가야 할 저 북한 주민들은
김씨 일가 우상화로 인해 북한 주민 전체
가 세뇌되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소
중한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
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와 인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면서도 항소도요 하
소연도 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어 외쳐주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와 국제사
회에서는 NKDB와 같은 북한 인권에 목
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들과 유엔 인권보
장이사회가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교계 안
에서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탈
북민 정착을 돕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인
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은 물방울이 마침내 큰 바위를 뚫어
내듯이 우리들의 작은 힘들을 합치고 합
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외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탈북민들
과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
되는 통일을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장기남 목사
편집인



못 박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
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
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엄청난 사실을 믿는다면 내 자신부터 하
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한다 (렘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
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향속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
라" (롬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
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시는 거룩한 산 제
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
배니라" 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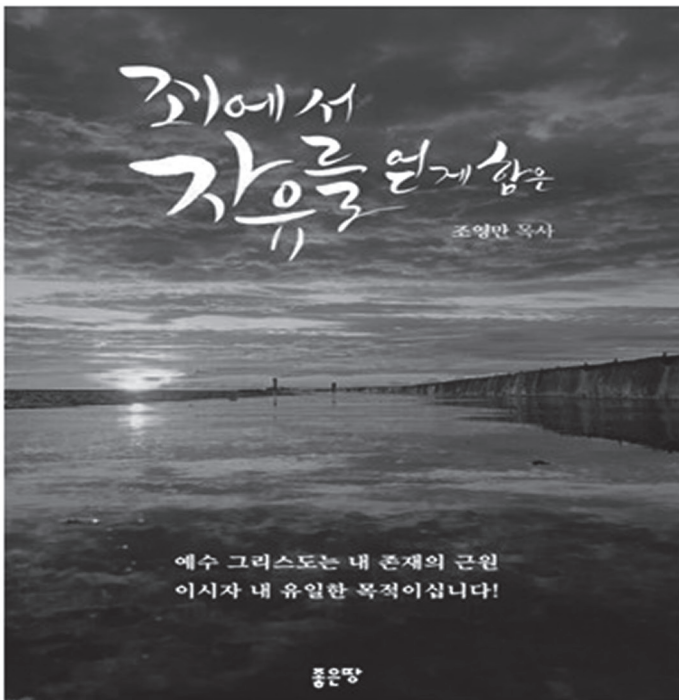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조영만목사

인천시은장로교회 담임목사
경인백성신학교 교수
지저스타임즈 부사장
현) 연수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 시청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 메트로 신우회 지도목사
전) 인천종합건설본부 지도목사
전) 인천 동구청 신우회 지도목사
국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전공
국제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 전공
인하대학교에서 체육교육과 전공
인하사대부속고등학교 10회

저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 (나뭇 출판사)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강해 상』 (나뭇)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아가강해 하』 (좋은땅)
『자유하리라』 (좋은땅 출판사)
『거듭남은 성령세례가 아닙니다』 (청송 출판사)
『전인구원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나뭇 출판사)



*** 책 주문 방법입니다.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주문자 성명, 입금자 성명, 받으실 주소, 신청 권수,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연락처 : 010-5355-2584

이메일 : choym7777@hanmail.net
예금주 : 시은교회 658101-01-715840 국민은행
계가계 : 15,000원

다음 카페 : 시온의 딸들에게 예복을
http://cafe.daum.net/choym.com
유튜브 : 조영만

목차

1. 성결을 이루려면
2. 죄에서 벗어나려면
3. 기쁜 소식(1) -죄의 쓴 뿌리와 기(氣) 속에 있는 죄
4. 기쁜 소식(2) - 원죄
5. 기쁜 소식(3) -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
6. 속사람(새사람)을 강건케 하는 비결
7.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8. 겉사람(옛사람) 끊겨 죽이는 비결
9. 죄를 짓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제 끝
10. 선과 의와 진리 가운데 못사는 것 이제 끝
11. 죄로 인한 죄절과 실패와 괴로움 이제 끝
12. 독립군과 해방군
13. 세상을 이긴 이집 - 물과 피와 성령
14.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남기신 이유
15. 장대위에 단 놋뿔을 바라보라
16. 불순종과 죄로 인한 실패와 죄절을 허락하신 이유
17. 이기는 생명은 오직 주 예수입니다
18.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의미는?
19.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20.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21. 애굽(세상)에서 광야(육신)로
22. 말뿐인 예수 그리스도
23.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24. 두 번 죽어야 성결의 은사
25. 죽이는 사역과 살리는 사역
27. 죽은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8. 산 믿음을 알고 계십니까?
29. 목회서신(000 목사님께)
30. 죄의 종이나? 의의 종이나?
31. 누가 주님을 의지할까? - 밀짚한 다리에 쉼 묵발?
32.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1)
33.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2)
34.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2-1)
35.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3)
36. 성결의 기초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4)
37. 작은 말뚝에 매여 있는 불쌍한 코끼리

38. 흉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1)
39. 흉보다 더러운 죄 버리는 비법(2)
40. 죄 버리는 것이 어려워요 합니까?
41. 마음(heart)에 있는 비진리 쉽게 버리는 비법(1)
42. 마음(heart)에 있는 비진리 쉽게 버리는 비법(2)
43.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1)
44.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2)
45.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46.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47. 공계! 마음의 경작 비결
48. 안식 그 이후
49. 죄(Sins)사람과 죄(Sin)에서의 해방
50. 목회서신(000 성도님에게)
51.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는 의미는?
52.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53. 영의 사람이 되려면?
54. 하나님의 열심과 자기 열심
55.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56.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57.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십자 마세요!
58. 계집종과 그 아들을 찾아내라!
59.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1)
60.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2)
61.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62. 에베레와 나비(짓 먹는 신앙과 밥 먹는 신앙)
63. 원수마귀의 거짓말
64. 영적 생활의 기본 원리
65.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66. 믿음의 분량에 따른 믿음의 선한 싸움은?
67.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
68. 첫 열매로 들림 받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은?
69.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70.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하실 그 일은?
71. 일천 척씩 척량하시는 주님
72. 마지막 때 지어야 하는 상종하 삼총 방주는?
73. 절어서 낳은 자식이란?
74.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려면?
75.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칼럼리스트

제목: 겨자씨 하나님 나라
성경: 마태 13장 31~32절 찬송 210장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가장 흔한 풀, 게다가 작고 작은 씨입니다. 나무라면, 비록 이스라엘에 백향목은 없지만, 그래도 무화과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겨자 나무일까요? 그것도 풀도 되지 못한 씨앗일까요? 겨자는 작은 풀이지만 정말 끝없이 틽니다. 다만, 겨자는 위로만 많이 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틽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저 홀로 우뚝 서서 그 아래에 풀 한 포기조차 용납하지 않지만, 그 큰 키 때문에 금방 잘려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겨자는 함께 어우러지고 펼쳐져서 마침내 들판을 온통 겨자꽃으로 물들입니다. 것뻘하고 쓰러져도 어느새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목: 밭에 감추인 보화
성경: 마 13장 44절 찬송 283장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 놓은 보물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다 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을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숨겨 있다고 말씀합니까? 밭이라고 합니다. 밭은 어디를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생활이요, 일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말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우리 속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숨겨 두셨습니다. 날마다 이 감춰진 하늘 보화를 발견해 가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목: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성경: 마 14장 22~23절 찬송 264장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나옵니다. 작은 음식으로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나 남았을 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호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을 떠나, 예수님은 조용히 홀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보는 시간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 전에도 홀로 시편을 치루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홀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분주한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목: 반석 위에 세운 믿음
성경: 마 16장 15~18절 찬송 204장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믿음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시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 반석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 믿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믿어 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인간, 죄인인 우리를 향한 믿음으로, 얼마나 믿어 주시기에 생명까지 내어 주셨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너희는 반석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믿음 의지해 승리하길 바랍니다.

제목: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
성경: 마 19장 13~15절 찬송 298장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율법을 지킨 공로가 있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이와도 상관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무 공로도 세울 능력이 없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은총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기 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깊이 아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는 어린이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제목: 은총의 선물
성경: 마 19장 23~24절 찬송 292장

재물과 인간, 소유와 존재의 관계는 참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재물을 소유하지만, 재물에 집착하면서 소유를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재물이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합니다.

예수님도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배하는 마약과 같은 것이겠습니까? 잘 살펴 물질에서 자유하고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목: 은혜로 다스림 받는 삶
성경: 마 20장 1~16절 찬송 301장

일찍 온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피아에서 땀 흘리며 많은 시간을 수고했는데,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임금을 똑같이 주다니 너무나 부당해 보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들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는 일한 사람의 공적에 눈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모두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묶은 어찌 보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제목: 겸손의 길
성경: 마 20장 20~28절 찬송 212장

예수님의 길은 섬기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유는 교만한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이 인간의 자기 한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지의 모습이라면, 겸손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깨달음과 지식에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흙으로부터 왔고, 하나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겸손함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감사한 마음으로 걷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목: 진정한 리더(섬김)
성경: 마 21장 4~9절 찬송 315장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탄 왕은 멋진 갈기를 휘날리는 높은 군마를 타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 속에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며 군림했던, 수많은 제국의 왕들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무력으로 폭력적 지배를 하는 그런 왕권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바닥부터 다른 왕의 통치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생명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환호해야 할 왕은 겸손하셔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왕인 것입니다. 그 왕이 모든 죄인들을 잘 섬기려고 죽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섬겨야 할 자리를 잘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리더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바르게 실천합시다
성경: 마 21장 28~32절 찬송 204장

하루는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대답하기를 "예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 다. 아버지는 다시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했습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일하러 가지 않겠다고 반항하듯 말했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께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것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하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닫고 바른 방향의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 늘 기도로 구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목: 잘못된 열정
성경: 마 23장 15절 찬송 540장

열성이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일찌기 예레미야는 가장 잘못된 신앙의 표본을 '벧훤놈 골짜기' 사건에서 보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확대하려고 제단을 더 크게 만들고, 끊임없이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힌놈 골짜기에서 아들을 제물 삼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하스의 이 제사가 사악한 살인행위일 뿐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은 없고, 왜곡된 탐욕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욕망과 세속적 욕망이 섞여질 때, 거기서 위선자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뜨거울수록 더욱 위험합니다.

제목: 최고의 소명
성경: 마 25장 24~25절 찬송 461장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맡겨준 달란트를 돌보지 않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 달란트는 작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는 일반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치면, 한 달란트는 장정이 25년 좌박 일해야

받는 거금입니다. 무엇보다 주인이 맡긴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소명은 다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1밀리미터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온 세상을 모두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1밀리미터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
성경: 마 25장 35~36절 찬송 220장

예수님도 나그네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나그네와 동일시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여 주었다" 그때 양의 무리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해 드렸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나그네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공동체를 지키는 기초요,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그네 길에 동행하시며 지켜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목: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마 28장 18~20절 찬송 505장

땅끝까지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말인가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간 교회는 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들리면, 그것으로 선교가 완성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땅 끝까지 가는 거기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소명을 주목합니다.

이 소명이 없이 땅끝까지 달려가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뜻을 깨닫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실천을 살아 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생활로, 역사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NYTERIAN CHURCCH

표어 :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소진우 목사 사역
지저스타임즈 사장
Cjntv 칼럼리스트
한국언론부흥사협의회
명예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Good TV 칼럼리스트

주일예배	대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시
	유 치 부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30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후 8시
금요일아예배		매일 오후 10시
토요일아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심야기도회		매일 오후 10시 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Tel. 02)934-1232

쉬운목회

이춘복 목사 지음

(남현교회 원로)

추천!
마음의 양식 목회에 큰 힘이 되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누구나 다 읽어보고 싶은 쉬운목회 40년, 목회의 경험담! 사랑의 목회! 노하우를 한 눈에... 감동과 은혜로운 이춘복 목사 저서
구입처 : H.P (010) 5319-3316



쉬운목회

이춘복 지음

쉬운 목회는 어찌 보면 교만한 말 같다. 목회는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욕심대로 하려면 무척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회를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으면 목회는 쉽고 행복하다.

"너의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저지 역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여 떠돌아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렘전 5:2)

킹덤북스

제가 아는 이춘복 목사님은 사람이 많고,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분이시며,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분이시다. 그러한 목사님의 삶이 목회 철학 가운데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책은 이춘복 목사님의 40년 목회 철학이 담긴 목회 간증서다. 성도들을 하나님께 소개하기 위하여 쉬운 목회라고 선포한다. 본서는 학생들과 이 시대의 젊은 목회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 기대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읽기를 권하는 바이다.

이제서 총장(총신대학교 총장)

저의 양적인 아버지이자 장례 스승이신 이춘복 목사님의 「쉬운 목회」 출간을 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춘복 목사님 앞에서 목회자의 인격과 목회의 기쁨을 보고 듣고 배우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 책에는 저 혼자 알고 있기에 누구 아까운 목사님의 인격과 가르침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40년 목회 경험과 노하우가 간증 형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면서도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쓴 이 책을 통해 많은 목회자와 목회자 후보자들이 다시 한번 목양의 본질과 방법을 깨닫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비하며 적극 추천합니다.

윤영배 목사(남원교회 담임목사)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 목회의 선배이신 이춘복 목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함께 사역해 오면서 이춘복 목사님은 열정과 행동을 보여 주셨고, 온화함으로 목회자임을 느끼게 됩니다. 온화함만으로는 유머 감각이 풍부하며, 진솔하고 추천력이 있으시며 어느 곳에서도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심리학이나 목회적 모든 분야에서 모범적이시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시고, 은퇴 후에도 사역이 넘치는 분으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이 책은 실천적 목회 사역 현장에서의 생동감이 넘치는 살아 움직이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기에 적극 추천합니다.

송홍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총회장)

글쎄 이춘복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들을 위하여 목회 교과서라고 할만한 책을 내놓으셨습니까. 신학 서적과 설교에 대한 책은 많지만 목회 실제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로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춘복 목사님은 교계적으로 훌륭한 지도자요, 목회도 개척하여 대성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책은 이춘복 목사님의 40년 목회 경험에서 나온 진솔한 이야기기에 더욱더 값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볼 책이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목회자들과 후보생들에게 기꺼이 추천합니다.

박병화 목사(합신 증경총회장)

이춘복 목사는 천교도 목회자들이 추구하는 기복하고 순결한 영성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교분이 되는 경건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은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을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실천하며 목회를 신실하게 한 자의 삶과 인격을 만날 수 있다. 선한 목회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온전 목회자의 화고복을 통해 선한 목회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체험케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서를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으로 확신하여 기꺼이 추천하는 바이다.

송영석 목사(서원교회 담임목사, 서울한양대학교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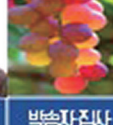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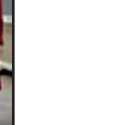
과연 어려운 목회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 그런데 이춘복 목사님은 어려운 것을 즐기고 말하는 역설적 목회자다. 왜 어려운 목회를 한다고 할까? 그가 정도(正道)를 감행(感行)한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다. 이 책은 지난 40년간 책만 목회 현장에 한 줄이 덧붙여 붙을 수 있는 한 원로 목사의 진솔한 고백이다. 부디 한국 교회의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이 책을 읽고 쉬운 목회의 원리를 찾아가길 소망하며 강력 추천한다.

이희성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ISBN 978-11-5886-272-5 03230
Printed in Korea 값 20,000원

축 지저스타임즈 창간 제19주년 감사예배 공고

언부협 총재			이 사장			사 장			창간 19주년기념 감사예배 지저스타임즈 / 한국기독교언론부흥사협의회 정기총회 이사회																																							
																																																
허창범 목사			박종서 목사			소진우 목사			정경목 목사		조광수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부 사 장			총괄국장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논설고문											
																																																
유선목 목사			성경목 목사		박종서 목사		조광수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명예총재			상임이사		특별이사		총무국장		광고국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정경목 목사			김수영 목사		오영복 목사		김민수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정경목 목사									

안내 / 일시 : 2023년 10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170-18) 남현교회

장소 : 남현교회(윤영배 목사 / 원로 이춘복 목사 안내) / **주최 :** 류재현 사무총장 010-3788-1130 박찬주 총무국장 010-8863-2070

차량 : 네비게이션 주소 입력 / 전화문의 서울 개봉동 남현교회 전철 개봉역 2번 출구 : 문의 / 02-2618-8877-8

신문방송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202호) 전화 / 032-672-3031(팩스겸용) 대표 : 010-5468-6574

홈피 안내 / 지저스타임즈(신문)

CJTN TV <http://jtnv.kr>

CPJ TV <http://cpj.kr>

대한예수교 장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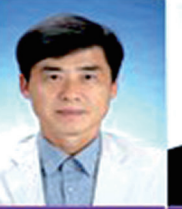


총 회 장

김현수 목사
꿈너머꿈교회

웨신총회 제 108회 정기총회

주제 : “선한 열매를 맺는 총회”(롬 8:28)

재부총회장	재부총회장	총 무	서 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 계	부회계
								
양덕심 목사 새생명교회	임애성 목사 별빛교회	김복래 목사 꿈과희망교회	이병만 목사 왕주장교회	이명선 목사 하늘교회	이정구 목사 예수누리교회	김미라 목사 주전교회	허송무 목사 더열교회	최선덕 목사 소망교회

총회장 김현수 목사(박사) 010-7667-4719 / 총무 김복래 목사 010-9852-3927

장소 : 인천시 서구 청라 커널로 263(세계비전교회/위임목사 김성현)

일시 : 2023년 9월 4일(월) 오전 11시30분 개회예배

웨신총회의 자랑 “화합하는 웨신총회”
본 교단은 일하는 웨신총회...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모토로 성경 중심의 예배와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기로 서약하는 모든 보수신앙과 개혁 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들과 함께 교계의 표준총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교단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원 교단으로 연합과 화합에 협력하고 있다.

목사 안수 및 교단 가입 문의 : 총회장 김현수 목사(박사) 010-7667-4719 / 총무 김복래 목사 010-9852-3927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302호)
☎(02)835-2606-7 Fax (02)835-2608 <http://ws333.org>

